

- 2013년도 인천광역시남구의회 -

공무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 목 차 】

I . 국외연수 개요	1
II . 연수국가 개요	
프 랑 스	2
스 위 스	9
이 탈 리 아	13
오 스트 리 아	19
독 일	23
III . 프랑스 연수내용	27
IV . 스위스 연수내용	32
V . 이탈리아 연수내용	33
VI . 오스트리아 연수내용	47
VII . 독일 연수내용	48
VIII . 연수도시의 시사점	50
IX . 연수후기	59
X . 참고자료	62

- 2013년 인천광역시남구의회 -

공무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 ❖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마인드 함양하고 해외 우수사례를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써 우리구 실정에 맞는 시책을 발굴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 서유럽의 선진문화, 전통예술, 도시환경, 다양한 지역특색을 직접 체험과 견학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의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함

I. 국외연수 개요

☐ **연수기간** : 2013. 5. 20(월) ~ 5. 29(수) [8박 10일]

※ 세부일정표 [별첨 1]

☐ **연수국가**

- 프랑스(파리)
- 스위스(인터라켄)
- 이탈리아(밀라노, 피사,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 오스트리아(인스부르크)
- 독일(하이델베르크)

☐ **연수인원** : 13명(의원 7, 공무원 6)

※ 참석자 명단 [별첨 2]

II. 연수국가 개요

프 랑 스

□ 일반 사항

- 국 명 : 프랑스 공화국(Republique Francaise)
- 위 치 : 유럽 중서부
- 면 적 : 549천km² (한반도 면적의 약 2.4배)
- 기 후 : 대부분 지역이 온대성 기후이나 남부 지방은 지중해성 기후
- 수 도 : 파리 (Paris)
- 인 구 : 6580만명(2013년 1월 기준)
- 주요도시 : Paris(224만명), Lyon(171만 명), Marseille(198만 명)
- 민 족 : Gaul족(켈트족의 일파), 로마족, 노르만족, 프랑크족의 혼합
- 언 어 : 프랑스어
- 종 교 : 가톨릭(62%), 이슬람교(6%), 개신교(1%), 유대교(1%), 기타(4%)
- 건국일 : 1789년 7월 14일(자유, 평등, 박애를 국가 이념으로 한 프랑스 혁명 발발 일)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의 입헌 공화국
- 국가 원수
 -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Francois Hollande), 2012. 5월 취임(5년 임기)
 - 총리 장 마크 애로(Jean_Marc Ayrault), 2012년 6월 임명
- 입법부 : 양원제(상원 343석, 하원 577석)
- 정 당(하원의석수) : 사회당(PS: 279), PRG및 좌파연대(314), 대중운동연합(229), 녹색당(17), 좌파전선(10), 민주운동(2), 국민전선(2), 기타(3)

- 1인당 GDP : 31,211유로(2011년 추정치)
- 산업구조 : 서비스 64.8%, 광공업 25.5%, 건설 7.4%, 농업 2.1%

□ 프랑스 역사(略史)

- 1789년 7월 대혁명은 가치와 이념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붕괴되었으나 최초로 서민 중심의 정치체제를 확립해준 근원이 되었다. 그 이후 왕정, 입헌군주, 공화정이라는 체제로 빈번히 뒤바뀌다가 공화정 체제로 정착하는 모체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 그 당시의 3대 주도 정치세력이었던 혁명 주도파, 반혁명 왕정과 및 권위주의적인 보나파르트파가 끊임없이 체제를 교체하는 주체로 활약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정당으로 분산되어 명맥을 유지해왔다. 오늘날에도 이들은 극좌, 좌파, 중도좌파 및 중도우파, 우파 및 극우파 등 10여개의 군소 정당들의 근원이 되어 정치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본래 대혁명 이후 탄생한 공화정의 이념은 의회에 많은 권력을 부여하고 행정부나 지도자의 권한을 상대적으로 줄이려는 것이었으나 본래의 개념과는 달리 대통령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커져버린 거의 대통령 중심체제로 변질되어 계승되고 있다.
- 좌파세력이 집권한 기간이 극히 짧아 우파 정치 성향이 짙어진 대통령 중심의 중앙집권적 체제로 변화한 것이다. 1970년대 들어 지방자치화로 중앙집권체제가 약간 약화되긴 했으나 지방정부의 예산 및 인사(임명 도지사) 권한은 여전

히 중앙정부 및 대통령이 쥐고 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이 연설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등 다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 그리고 EU 통합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주권을 유지하는데에 필사적이다. 또한 EU내에서 경제적 주도권을 잡게 된 친독 세력을 의식하여 지중해연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연합체를 형성하는 데에 앞장 서는 등 보나파르트파의 권위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재정위기 및 불경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당 정권이 다시 권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수주의 내지 보호주의적 정치 성향은 점차 짙어지고 있다.
- 사회적으로는 혁명 주도파의 지지세력들이 프랑스 공산당 및 사회당의 주축이 되었고, 이들은 노조활동 및 강경한 시위운동 등을 통해 프랑스식 사회보장제도를 탄생시켰다. 프랑스의 사회주의 세력들은 공화정 체제 안정을 위해서 공산주의 세력을 잠재울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사회 안정을 도모하였다.
- 이러한 복지제도는 경제위기 시 국민 소득의 안정적인 기반 역할을 해주는 강점이 있으나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탄을 받게 되어 프랑스 사회는 점차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과세부담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 프랑스 정치체제

- 프랑스의 정치체제는 순수한 의원내각제도 아니고, 온전한 대통령 중심제도 아닌 이원 정부제이다. 프랑스는 대혁명 이후 여러 형태의 헌정을 실시해 왔는데, 제5공화국에서는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에서 다수 정당의 난립으로 정권이 불안정했던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면서도 의회주의의 전통을 유지하는 절충형 헌법을 채택하였다.
- 대통령은 제5공화국 헌법 하에 외교·국방·국내정치를 아우르는 방대한 권한을 가지는 반면, 의회의 불신임으로부터 면제받는 초월적 지위를 갖는다. 행정권은 총리가 지휘하는 행정부가 가지며 행정부는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입법부는 하원 우위의 양원제이나 상원도 개헌문제에 관하여는 등 하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상원은 대통령의 의회해산권 대상이 아니다.
-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으나 사법권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상당한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이 사법권 독립의 보장자로서 최고사법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의 의장을 겸하고 있으며, 최고사법위원회가 대법관 및 고등법원장 임명을 제청하게 되어 있다.
- 프랑스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되며, 각료들은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결정하여 총리와 공동 서명한 대통령 법령으로 임명된다.

-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중요한 국가정책을 집행하며 국회 해산권과 비상조치권을 갖는다. 의회는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없으며 내각에 대해서만 불신임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은 내각과 의회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 의회는 직선되는 국회(하원)와 간선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상원으로 구성된다.
- 내각은 행정권을 갖는데 순수의원내각제와는 달리 내각구성원은 의원직을 겸임할 수 없고, 내각은 의회해산권도 없다.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의 총리에 대한 불신임 제도로 인해 다수당이 추천하는 자를 총리로 임명하게 되어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정당이 다른 동거정부가 성립할 수도 있다.
- 프랑스식 정부형태의 특징은 일단 국가 원수인 대통령과 내각의 총책임자인 총리의 선출방식이 다르고 담당 분야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제도의 장점은 대통령제의 장점과 순수의원내각제의 장점을 합쳐 놓았다는 것이다. 일단 국방이나 외교, 그리고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일관된 정책을 취할 수 있다. 또한 행정부는 의회에서 선임된 내각이 담당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내각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짐으로써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장점으로 부각된다.
- 반면 단점은 대통령제와 순수의원내각제의 단점들이 역시 합쳐졌다는 점이다. 일단 의회 내부에 군소정당이 난립 시

정국이 혼란스러워지며 의회가 입법을 하는 순수기능은 잃고 정권탈취를 위한 경쟁장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 총리와 의회의 다수당이 합세할 경우 다수결의 횡포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아울러 대통령과 총리를 선출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해, 만일 두 사람이 다른 정당의 소속이어서 서로 대립한다면, 이에 대한 대응방법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취약한 부분으로 꼽힌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신임 등 견제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통령 자신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임기 동안에는 제지할 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 프랑스 경제정책

- EU 재정위기 극복 및 프랑스 경제 회복을 위해 투트랙(Two-track)의 대내외 경제정책을 운용 중이다.
- 대외정책으로는 EU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 도출을 위해 회원국, 특히 독일과의 정책조율에 중점을 두고 있다. EU 재정·금융통합 강화 및 재정위험국가 지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Hollande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ECB의 역할 확대, 유로본드의 도입 등 금융·재정통합 강화 필요성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최근 Montebourg 생산성재건부 장관은 유럽중앙은행에 대해 전면적 통화 거래(OMT)의 즉각 실시, 유로화의 가치 절하 등 성장·고용 친화 정책 시행을 요구했다.

- 프랑스는 남유럽 국가의 입장을 대변, EU 경제 중심국이자 최대 재원 부담국인 독일과의 정책협약에 주도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2012 년 8 월 독일 · 프랑스 양국 재무부 실무 TF 설치 후 이를 운용하고 있다.
- 대내정책으로는 재정건전성 · 펀더멘털 강화를 위한 긴축 기조 하에, 자국 산업 보호를 통한 경쟁력 회복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비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긴축에 정책운용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13 년 재정적자 3% 달성을 위한 지출감축(100억 유로) 및 증세(200억 유로)정책을 추진 중이나, 이미 동 목표 달성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출감축 정책은 SOC/보조사업 등 주요 사업예산을 재검토하고,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는 등 경상경비를 감축하고, 국방예산의 감축 및 지자체 교부금의 동결 등이다.
- 증세정책은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15 만유로 이상, 45%), 60% 특별소득세율 신설(헌법위원회에 의해 폐기된 75% 세율을 하향 조정), 부유세율 인상, 법인세 감면 축소 등이다. 국내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세대간 계약, 미래 일자리 등) 등을 통해 재정긴축의 부작용(경기침체 악순환)을 보완한다는 계획이지만, 정책의 가시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까지 290억 유로의 세수를 증대하여 200억 유로를 고용증대, 중소기업지원, 교육강화, 도시복지에 충당할 계획이다. 유로본드 발행, 탄소세 및 토빈세 도입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스 위 스

□ 일반 사항

- 국 명 : 스위스(The Swiss Confederation)
- 위 치 : 북위 45~48도의 유럽 대륙 중심부에 위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와 인접)
- 면 적 : 41,285km²(※ 한국 : 99,394 km²), 이 중 60%는 알프스산지
- 기 후 : 온난성기후(1-2월 평균기온 -2~7℃, 7-8월 평균기온 18~28℃(평지 기준))
- 수 도 : 베른(Bern)
- 인 구 : 804만명(2012년말기준) (이중 외국인 인구는 186만명임)
- 주요 도시 : 취리히권(1,399천명), 제네바권(460천명), 베른권(988천명) (2012. 6월말 기준)
- 민족(인종) : 게르만족과 켈트족 주류
- 언 어 : 독일어(63.7%), 불어(20.4%), 이탈리아어(6.5%), 레토로만어(0.5%), 기타 (7.5%)
- 종 교 : 가톨릭(41.8%), 개신교(35.3%), 무종교(11.1%), 이슬람교(4.3%) 등
- 건국(독립)일 : 1291년 8월 1일
- 정부형태 : 직접 민주주의를 가미한 공화국 형태
- 국가원수 : Mr. Ueli Maurer (임기 : 2013. 1. 1 ~ 2013. 12. 31)
- 입 법 부 : 양원제
 - 칸톤 동수 대표로 구성된 상원(Staenderat) 46명
 - 칸톤 인구비례로 구성된 하원(Nationalrat) 200명
- 정 당 : 다수의 정당 존재(2012~2015년)
 - 하원(총 200석) : 스위스국민당(SVP, 54석), 사회민주당(SP, 46 석), 자유민주당(FDP, 30 석), 기독교민주당(CVP, 28 석) 등
 - 상원(총 46석) : 기독교민주당(CVP, 13 석), 사회민주당(SP, 11 석), 자유민주당(FDP, 11 석), 스위스국민당(SVP, 5 석) 등

- 정부성향 : 중립
- 1인당 GDP : 74,160 스위스프랑(2011년)
- 산업구조 : 서비스 산업(73%), 제조업(23%), 농업(1%)

□ 스위스 역사(略史)

- 1291.8.1 Uri, Schwyz, Unterwalden 3개 지역이 루트리(Rutli)에서 단합하여 원형칸톤(Ur-Kantone)을 형성, 당시 강력한 합스부르크 왕가의 영토확장 요구에 공동으로 대항하면서 사법행정의 자치권 보호를 위해서 동맹하여 서약을 맺은 바, 이것이 최초의 스위스 동맹 (Swiss Confederation)의 시초가 되었다.
- 이후, 1332 년부터 1513 년까지 10개주가 스위스 동맹에 가입하였다. 다시 1815 년에 3개주가 스위스 동맹에 가입하는 등 총 25개주가 스위스 동맹에 가입하면서 현재의 국경을 확보하게 되었다.
- 17 세기 가톨릭 주와 개신교 주간의 종교내분, 민주주의 정체와 귀족주의 주 간의 내전이 발생하였으나, 대외적으로는 유럽 내 30년 전쟁(1618-1648)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향후 스위스 중립정책의 기초가 되었다. 1648년 30년 전쟁을 종결짓는 베스트팔리아(Westphalia) 조약에 의해 대외적으로 독립국가로 인정받았으며, 대내적으로는 신·구교의 이원화 전통이 확립되었다. 1798 년 나폴레옹은 스위스를 Confederation Helvetica로 국명을 부여하고 혁명정부를 수립, 모든 봉건적 특권을 폐지하고 종교, 문화와 언론의 자유를 부여하였으나 나폴레옹 몰락 이후 헬베티아 혁명정부도 쇠퇴하게 되었다.

- 1812년 스위스 연방은 대내외적으로 중립국을 선언하였으며, 1815년 비엔나 회의에서 최초로 국제사회로부터 영세중립국 승인을 받게 되었다. 1830년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스위스 여러 주에서 공업화된 주들이 신교로 전향하면서 자유·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게 되자, 구교세력은 이에 반발하여 “분리동맹”을 결성했고, 결국 1847년 보수·가톨릭 세력과 자유·진보 신교 세력간 충돌, 내란이 일어나고, 신교 측이 승리하게 되었다.
- 1848년 신구교간 화해가 이루어져 새로운 연방헌법이 국민투표에 의해 제정되어 베른을 연방수도로 정하고 연방정부와 양원제 의회를 채택하게 되었다. 1874년 헌법 개정으로 25개주 연방공화국을 채택, 스위스 동맹이 연방국가로 발전하면서 국민투표제가 도입되고, 근대 독립국가로 출발하게 되었으며 1978 년 Jura 주가 Bern 주에서 분리되어 현재의 26 개주가 성립되었다.
- 1959.2.1 Vaud주에서 처음으로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후, 1971 년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국민투표가 통과되었으며, 1989.4.30 Appenzell주가 스위스 주에서 마지막으로 여성투표권을 부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성권한 신장을 통하여 마침내 1999 년 Ruth Dreifuss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 2002.9.10 UN에 공식 가입하게 되었는데 UN 가입 국민투표가 1986년에는 75%의 반대로 부결되었으나, 2002.3.3. 국민투표에서 찬성 54.6%로 통과되었다.

- 2011. 10. 23에는 스위스 상하의원 의회 선거(2012~2015년)가 있었다. 스위스 최대 정당이자 극보수당인 스위스국민당(SVP)은 ‘외국인 대량 이민 반대 및 이민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워 특히 EU지역에서의 스위스 이주 증가에 대한 스위스 국민의 우려를 선거에 이용하려 하였다. 그러나 스위스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계의 외국인 이주 필요성, 스위스 시민의 개방적 마인드로 SVP의 공약은 큰 인기를 얻지 못한 채 오히려 확보 의석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하원에서 가장 많은석을 보유하고 있다. (62석 → 54석)

□ 스위스 정치제도

-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18세 이상 유권자)의 참정권을 선거, 국민제안, 국민투표, 청원 등 4가지 형태로 행사할 수 있다.
- 국가권력은 연방(Bund)정부, 주(Kanton)정부, 시·군(Gemeinde)정부 등 총 3단계로 분산 위임 되어 있으며 각 주정부 및 시·군정부는 독자적인 행정부, 의회, 법원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연방정부의 역할은 안전보장, 외교관계 유지, 조세, 체신, 금융, 병역 등 업무 조정 및 감독에 있으며 주정부는 연방정부 결정사항을 시행한다. 단, 공공재산, 학교, 경찰, 소방, 보건, 민방위 운영 등 분야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전권을 행사한다.

이탈리아

□ 일반 사항

- 국 명 : 이탈리아 공화국(La Repubblica Italiana)
- 위 치 : 남부 유럽
- 면 적 : 301,333 km²(한반도의 약 1.36배)
- 기 후 : 지중해성 기후
- 수 도 : 로마 (Roma)
- 인 구 : 61,232,451 (2013년 3월기준)
- 주요도시 : 로마(4,194,068), 밀라노(3,156,694), 나폴리(3,080,873), 토리노(2,302,353), 팔레르모(1,249,577), 제노바(882,718)
- 민 족 : 이탈리아인(북부 프랑스계, 오스트리아계, 슬라브계 /남부 알바니아계, 그리스계 소수)
- 언 어 : 이탈리아어(국경 지역은 독일어, 프랑스어, 슬로베니아어 병용)
- 종 교 : 기독교(80%, 대부분 로마카톨릭이며 소수의 개신교 및 여호와의 증인), 기타(20%, 이슬람교 등)
- 건국(독립)일 : 1946년 6월 2일(이탈리아 공화국 선포)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국가원수
 - 국가원수 : 조르조 나폴리타노 대통령(Giorgio Napolitano)
 - 총리 : 마리오 몬티(Mario Monti)
- 1인당 GDP : 32,745달러
- 산업구조 : 서비스업(74.1%), 제조업(23.9%), 농수산업(2%) (2012년)

□ 이탈리아 역사(略史)

- 기원후 5세기 서로마제국 멸망 이후 이탈리아는 수 십개의 도시국가와 왕국으로 분열되어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중앙에 위치한 반도국가로서 이탈리아는 주변 강대국의 침략에 오랫동안 시달려야 했으며, 특히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북부 이탈리아를 서로의 영향권 아래에 두기 위해 경쟁을 지속했다.
- 이탈리아 통일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반으로,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 치하의 사르데냐 왕국이 중심이 되었다. 특히 사르데냐 왕국의 재상 카부르는 교묘한 외교술로 롬바르디아를 오스트리아로부터 해방시키는 한편, 토스카나를 비롯한 중부 이탈리아의 병합을 추진하였다.
- 이와 별도로 남부에서는 가리발디가 ‘붉은 셔츠단’이라는 의용군을 이끌고 남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 섬을 차지하고 있던 양시칠리아 왕국을 점령, 이를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에게 바침으로써 이탈리아 통일은 거의 완성되었다. 1861년,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를 국왕으로 하는 통일 이탈리아 왕국이 선포되었으며 첫 수도는 사르데냐 왕국의 수도였던 토리노로 정했다가 이후 피렌체, 그리고 로마 점령 이후에는 로마로 옮겨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 한편 1861년의 통일은 불완전한 것으로 교황령이 있던 로마는 종교적 상징성과 국제정치 역학관계에 의해 이탈리아 왕국에 포함되지 못하였으며 북동부의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지대 역시 갈등관계로 남겨지게 됐는데, 로마는 1870년 보불

전쟁 당시 중립을 지키는 대가로 병합을 승인받게 되었고 북동부 지역(남티롤, 트리에스테 등)은 1차 세계대전 후 오스트리아로부터 할양받게 되었다. 이로써 이탈리아의 지리적 외연이 확정되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 1차 세계대전 후 이탈리아는 승전국 자격으로 국제연맹 상임이사국이 되는 등 국제정치의 주요 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나 전후 경제불황과 대공황 등 정치·경제적 혼란이 끊이지 않다가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당이 집권하게 되었다. 무솔리니는 나치 독일 및 일본제국과 동맹을 맺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으나, 그리스·북아프리카 등지에서 패전을 거듭하였으며 1943년에 연합군이 시칠리아섬에 상륙하자 항복하였다. 1946년 6월 국민투표에 따라 이탈리아는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제를 채택하였으며 공화국 헌법은 194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공화제 출범 이후 이탈리아는 기독교민주당 연립정권이 40여년의 장기집권에 성공하였으나 군소정당 난립과 당내 파벌간 알력으로 1996년까지 내각이 55회나 바뀌는 등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와중에도 이탈리아 경제는 착실한 성장을 지속해 1960년대까지 연평균 5.5%의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며 1957년에는 EEC(유럽경제공동체) 창설멤버로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역할을 계속한다.
- 한편, 1992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정치권 뇌물수사(Mani Pulite)는 기존의 기독교민주당 등 정치세력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였다. 1994년 총선에서 기독교민주당과 사회당 등 기존 정당들이 몰락한데 반해 신흥 언론재벌인 실비오 베를

루스코니(Silvio Berlusconi)가 이끄는 전진이탈리아당(Forza Italia)과 국민연합(Alleanza Nazionale), 북부분리주의 정당인 북부리그(Lega Nord) 등 우파연합이 좌파연합을 누르고 승리했다. 그러나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부패 연루 혐의로 곧 실각하였고 1996년에는 좌파연합의 프로디 총리(Romano Prodi) 총리가 집권하게 되었다.

- 한편, 2001년 5월 총선에서 우파연합이 승리함으로써 총리직에 복귀한 베를루스코니는 2006년 프로디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하면서 총리직에서 물러났다가 2008년 총선에서 우파연합이 다시 승리하며 세 번째로 총리직에 취임하였다. 그러나 재임기간에 불거진 각종 성추문과 부패·탈세혐의로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고 이탈리아-독일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가 550bp까지 치솟는 등 경제위기가 악화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11년 11월 12일 전격 사퇴하게 된다.
-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사임 이후, 전 밀라노 보코니대 총장이자 EU 집행위원을 역임한 마리오 몬티(Mario Monti, '11.11.16 취임)를 총리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관료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도 높은 재정긴축 및 산업경쟁력 제고 정책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시장의 신뢰를 서서히 회복하는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다.
- 그러나 연금개혁, 시장자유화조치 및 긴축재정으로 대표되는 몬티 총리의 경제개혁안은 이해집단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면서 초기의 활력을 상실하게 되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의회 역시 경제개혁안 승인을 늦추는 등 몬티 정부의 개혁안은 점차 속도를 잃게 되었고 2013년 2월에 치러진 총선

에서 몬티가 이끄는 중도연합이 참패하는 등 이탈리아의 정치경제 개혁은 좌초위기에 빠지게 된다.

□ 이탈리아 외교

- 이탈리아 외교관계는 기본적으로 EU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51년 프랑스 외무장관 쉬망의 제안에 따라 탄생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원년 멤버로 참가한 이탈리아는 이후 EC 와 EU로 발전한 유럽통합의 역사에 주역으로 참가해왔으며 1999년부터 도입된 유럽 단일 통화인 유로화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12개국 가운데 하나이다.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이탈리아의 대외정책은 EU 공동정책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EU의 공동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유럽연합을 이끌어가는 실질적 축 가운데 하나로 기능하고 있다.
- 이탈리아는 EU 회원국 가운데 지중해 국가와의 협력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89년 11월 중부유럽 4개국 회의 창설을 주도하였으며, 1992년 7월에는 회원국을 10개국(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으로 확대하여 정치, 경제, 과학,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EU-지중해 국가 각료회의(EUROMED), 지중해 국가간 정치, 경제, 문화, 과학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지중해 포럼', 이탈리아가 주도하고 있는 '서부 지중해 협력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중해 지역에서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 이탈리아 경제상황

- 2010년 BRIC 등 세계 신흥경제국가들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다소 성장했던 이탈리아 경기는 서유럽국의 재정위기 및 미국의 실물경기 회복 지연의 영향으로 2011년 하반기부터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9년 -5.5%까지 떨어졌던 이탈리아 GDP 성장률은 2010년 글로벌 경기회복에 의해 1.8% 성장하였으나 2011년에는 0.5%에 그쳤다. 2012년 역시 GDP 성장률은 -2.2%로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으며 2013년은 -0.8%로 전망된다.
- 2011년 9월 부가가치세 인상(20%에서 21%로 1%pt 인상) 등 정부의 재정 긴축안에 의해 이탈리아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가중되었으며, 투자 감소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으로 고용 지표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전반적인 소비심리 냉각으로 이어지고 있다.
- 이탈리아의 경상수지는 2008년 이래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0년과 2011년은 각각 720억 달러와 719억 달러를 기록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였다. 경상수지 적자의 주된 요인은 무역수지 적자(2010년과 2011년 각각 273억불과 247억불)였으며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이전수지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2012년 이후 무역수지가 소폭 흑자로 돌아서고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이전수지의 적자폭도 줄어들면서 경상수지 적자는 317억불로 하향조정될 전망이다. 2013년에는 불황형 무역흑자로 경상수지 적자폭도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노동시장은 2008년 후반의 경기침체의 여파가 2010년 상반기까지 작용하였으나, 2011년 상반기에는 비숙련 서비스 및 제조업 분야에서 계약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1년 하반기 이후 경기하강과 2012년 노동법 개정을 통한 직원 해고 가능 및 정년퇴직 연령 연장으로 실업률 증가 추세는 2013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며, 2012년 실업률 역시 당초 전망치였던 9.5%를 상회하는 10.9%를 기록한 바 있다.
- 전반적으로 높은 실업률과 더불어 이탈리아 노동시장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청년 실업률로서 현재 3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실업률이 특히 높은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서는 여성 실업률은 4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최저임금제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고용 계약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급여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오스트리아

□ 일반 사항

- 국 명 : 오스트리아(Austria, 獨文Oesterreich)
- 위 치 : 중부유럽 하부
- 면 적 : 83,858km²(남한 면적보다 다소 작음)
- 기 후 : 대륙성 기후
- 수 도 : 빈(獨文Wien, 英文Vienna)
- 인 구 : 839만(인구 밀도= km²당 100명)

- 주요도시 : 빈(171만명), 그라츠(25만명), 린츠(20만명), 잘츠부르크(15만명), 인스부르크 (11만명)
- 인구증가율 : 연간 약 0.35%(인구 노령화로 고민)
- 인구구성 : 게르만계 85.8%, 소수민족 2.9%, 상주 외국인 11.3%
- 상주 외국인 : 구 유고슬라비아인 38%, 독일인 15%, 터키인 12%, 기타 35%
- 종교구성 : 가톨릭 72.0%, 개신교 6.1%, 이슬람 4.9%, 무종교 12.2%, 기타 4.8%
- 언어 : 독일어
- 건국일 : 최초 건국연도는 996년, 국경일 10월26일은 1938년 독일에 강제 합병된 후 2차 세계대전을 거쳐 1950년 승전 연합국의 승인을 얻어 독립을 선언한 날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국가원수
 - 대통령 Dr. Heinz Fischer(국가 원수, 임기 6년)
 - 총리 Werner Faymann(실권자, 임기 5년)
- 1인당 GDP : 36,969유로
- 산업구조 : 제조업/광업 19.4%, 유통업 13.4%, 금융업 4.9%, 건설업 6.8%, 교통통신 7.4%

□ 오스트리아 역사(略史)

- 오스트리아는 2차 대전 종전시 미국, 영국, 프랑스, 구소련 등 4국 연합군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고, 1945년 사민당 출신 렌너(Karl Renner)를 대통령으로 모든 정당이 연합하여 제2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제2공화국의 영토는 1938년 독일 합병 이전의 상태로 복귀되었으며, 헌법도 1920년 제1공화국 헌법으로 복귀하였다. 오스트리아는 4대 연합국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으나, 소련의 동구권 위성국가화에 반대하고 미국의 마셜 계획을 포함한 서유럽 경제에 의존함으로써 친서방 경향을 취하게 되었다. 오랜 협상 끝에 1955년 5월 15

일 4대 연합국과 오스트리아간에 주권회복을 위한 국가조약이 서명되고, 동년 7월 27일 동 조약이 발효되었다. 1955년 10월 26일 오스트리아 영구 중립을 규정한 제2공화국 헌법이 선포되었으며, 12월에는 유엔에 가입하였다.

- 1955년 제2공화국 탄생 이후 최근까지, 주로 양대 정당인 보수 국민당과 진보 사민당이 정권교체 및 연정을 통해 오스트리아의 정치를 주도하고 있다. 2008년 9월 28일 실시된 조기총선 결과 제1당인 사민당과 제2당인 국민당이 연정을 구성함으로써, 2008년 12월 2일 현재의 정부가 출범하였다.

□ 오스트리아 외교

- 오스트리아는 1955년 국가조약 및 헌법을 통해 향후 군사동맹 가입 및 외국군의 자국 내 영토주둔금지를 규정한 중립정책을 외교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 그러나, 1991년 걸프전 당시 다국적군기의 자국 영공통과를 허용하는 등 냉전후 안보환경의 변화 그리고 1995년 EU 가입을 계기로 오스트리아의 중립주의는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 오스트리아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평화유지 활동 참가, NATO의 PfP (Partnership for Peace) 참가 등을 통해 유럽의 공동 안보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1년 1월 오스트리아 정부는 중립정책의 수정 의사를 표명하고, 외국군 임시체류법 및 외국군 무기의 오스트리아 통과법을 제정(7월 1일 발효)하는 등 중립정책 변경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EU 헌법 제정 논의를 계기로 구체화되고 있는 공동외

교안보정책(CFSP) 참여 문제를 둘러싸고 주재국 '중립주의' 수정 논의가 재연된 바 있으나, 국민 대다수가 현 중립주의 유지를 선호하고 있어 당분간은 '사실상의 중립주의 수정, 헌법상의 중립주의 유지'라는 형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전통적으로 유럽 중심의 외교정책을 추구해 온 오스트리아는 1995년 EU에 가입한 이래 1998년 하반기 EU 의장국 수임기간 중 EU 공동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동서 냉전시대 이래로 동서진영의 가교역할을 자임해 온 오스트리아는, 냉전종식 및 구소련 해체 이후 CEI(Central Europe Initiative)를 추진하고 EU의 동구권으로의 확대를 계기로 중·동구 유럽의 중심적 역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오스트리아 경제

- 오스트리아 경제는 전통적으로 제조업 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광 등 서비스 산업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 EU 가입 후 구 동유럽 공산권 국가의 체제 전환 후, 중동부 유럽국가 투자의 효과로 2003년 이래 2007년까지 경기가 활성화되며 높은 성장율을 시현하였다.
- 그러나, 2008 년 이후 누적된 내수 부진, 유로화 강세, 국제유가 상승, 세계 경제 둔화, 글로벌 금융 위기 등으로 경기가 급속 하강하면서, 2009년에는 마이너스 실질성장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2009년 중반부터 세계 각국의 재정 확대 정책과 국내적인 경기 부양 정책 등에 힘입어 생산 및 수출이 다시 증가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2010년 이후 2.0~3.0%대의 실질 성장율을 기록하였다.

- 2011년 하반기부터 유럽을 휩쓸고 있는 국가 재정위기 및
이의 확대 우려로 2012년 소폭(0.6%) 성장에 그친 가운데,
이 같은 추세가 적어도 2013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 일

□ 일반 사항

- 국 명 : 독일연방공화국(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독일어명: Bundesrepublik Deutschland)
- 위 치 : 서유럽
- 면 적 : 357,022km²(한반도의 1.6배, 대한민국의 3.6배)
- 기 후 : 온대성, 연간 섭씨 -1.3~17.8도, ('11년 연평균 9.6도)
- 수 도 : 베를린(Berlin)
- 인 구 : 8,131만 명, 이 중 외국인 비중 8.5% ('12년 7월 기준)
- 주요도시 : Berlin(346만명), Hamburg(179만명), Muenchen(133만명), Koeln(100만명), Frankfurt(67만명)
- 민족(인종) : 게르만족
- 언 어 : 독일어
- 종 교 : 카톨릭(34%), 개신교(34%), 이슬람(3.7%), 무교 및 기타(28.3%)
- 건국일(통일기념일) : 1871.10.3 (비스마르크 수상에 의해 독일 제2제국 탄생)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국가원수(실권자)
 - 대통령 Joachim Gauck: 국가 원수, 임기 5년
 - 수상 Angela Merkel: 임기 4년
- 1인당 명목 GDP : 37,936유로 (2011년)

□ 독일 역사(略史)

- 고대에 여러 게르만족이 살던 독일 땅은 게르마니아로 알려져 있었으며, 100년 이전에 관련 기록이 남아있다. 10세기부터 게르만족의 땅은 1806년까지 존속한 신성 로마 제국의 중심부를 이루었다. 16세기에 북독일은 루터교회가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된 종교 개혁(Reformation)의 핵심부로 자리잡았다. 1871년 프랑스-프로이센 전쟁 중에 독일은 최초로 통일을 이루어 근대적인 국민 국가가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1949년에 독일은 연합군 점령지 경계선을 따라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었으나, 1990년에 재통일을 이루었다.

□ 독일 정치 제도

- 독일 기본법(헌법 해당)을 통해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주의, 의원내각제, 연방주의, 사회복지주의 및 법치주의로 규정된다. 정치권 안정을 위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이 철저하며, 과거 세계대전 및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를 거울 삼아, 전체주의적 경향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연방하원이 정치의 중심이 되고, 행정부는 연방하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 독일 대외 정책

- 통일 이후 대외 정책상 제약 요소가 사라짐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 독일의 지위와 영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경제에 이어 정치·안보 분야에서도 유럽의 핵심 국가로 부상하였

으며, 유럽 통합 추진과 방위 및 對동유럽 정책 수행에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1999년에는 EU, G7 의장국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외교적 전기를 마련했다.

- 독일은 미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대서양 협조체제 강화와 러시아에 대한 개혁 촉구 및 안보를 위한 지원, 구동구권 군소국가들과의 긴밀한 접촉 및 적절한 지원 등에 힘쓰는 동·서양면정책을 취하고 있다. 외교 노선은 EU(European Union),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sation)를 축으로 하고 있으나, 러시아와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의 우호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다. 구유고와 소말리아 내전에 유엔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참가한 것은 독일이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을 높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 아울러 중국과의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2011년 독일의 대 중국 수출 : 648억 유로, 전년대비 20.4% 증가) 독일 정부는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메르켈 수상은 중국을 2번 방문하였으며, 특히 8월 방문시에는 폴크스바겐, 지멘스, 튀센크롭 등 19개사 CEO들과 동행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도모한 바 있다.
- 독일은 중동지역 국가들의 EU, WEU, NATO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OSCE(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기능 강화를 추진하여 중·동구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이 큰 편이다. 이러한 독일의 정치외교적 역할 강화는 EU 핵심 국가인 프랑스 및 영국과의 관계 개선과 더불어

어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와의 긴밀한 정치·경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합동군도 창설하는 등 향후 유럽 통합군의 주축을 겨냥하고 있다.

□ 독일 경제 상황

- 2012년 독일 경제는 내수시장 및 고용 안정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0.7%의 성장에 그쳤다. 이는 유럽 내 긴축 노력에도 경기 침체로 재정적자 축소에 한계가 있으며, 자동차, 기계, 섬유 등 전반적인 산업에 걸쳐 수요 감소세 및 지난 '12년 4분기 이후 독일 경제 내 투자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 독일은 지속적으로 유로존 경기 안정을 주도하고 있고, 하반기 내수 경기를 견인할 수 있는 경기지표가 대체로 안정되어 있으나, 유로존 위기의 불확실성에 따른 독일 내 투자약화로 높은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파와 경기회복에 따라 2012년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대비 0.3% 포인트 상승한 2.0%로 나타났다. 최근 물가는 에너지 가격 하락세와 더불어 상승폭이 감소하였으며, 향후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상방리스크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중기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안정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13년 1 분기 총 고용인구수는 4,15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율을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독일 내 장기 실업자수는 '05년 대비 반으로 감

소하는 등, 고용분야에서는 특히 구조적인 변화가 뚜렷하며, 특히 최근 들어 서비스 분야 내 고용이 제조 및 건설업 대비 보다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 '13년에는 고용인구가 20만명 증가해, 독일 내 평균 실업자 수는 290만명 선으로 예상되므로, 독일 내 실업률은 6.8%로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더 나아가, '14년의 경우 보다 뚜렷한 경기 회복 전망에 따라 총 12만명의 고용인구 증가가 예상되므로 실업률은 6.6%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변 위기국으로부터의 취업 이주자유입에 따른 영향이 독일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저해요인을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Ⅲ. 프랑스 연수내용

□ 에펠탑

- 에펠 탑은 1889년 파리 마르스 광장에 지어진 탑이다. 프랑스의 대표 건축물인 이 탑은 격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구조물은, 프랑스 혁명의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한 세계 박람회인, 1889



1889년 파리만국박람회와 대혁명 100주년 기념을 위해 지어진 324m높이의 에펠탑

년 만국 박람회의 입구로서 1887년부터 1889년까지 건축되었다. 탑은 1889년 3월 31일 준공식을 하였고, 같은 해 5월 6일 일반에 공개되었다. 모리스 쾨클랭의 구조 설계를 바탕

- 으로, 300명의 작업자가 정련된 부품(단단히 제련된 건축용 철제) 18,038 조각을 50여 만 개의 리벳을 이용해 조립하였다.
- 에펠 탑은 그 높이가 324 m(1,063 ft)이며, 이는 81층 높이의 건물과 맞먹는 높이이다. 관광객을 위해 3개 층이 개방되어 있다. 첫번째 층과 두번째 층까지는 표를 구입해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통해 올라갈 수 있다. 첫번째 층까지의 높이와 첫번째 층부터 두번째 층까지의 높이는 각각 300계단이 넘는다. 가장 높은 세번째 층은 엘리베이터로만 올라갈 수 있다.
 - 이 탑은 처음 지어졌을 때, 많은 이로부터 거슬린다는 비난을 받았다. 당시의 신문은 파리 예술 협회가 실은 비난조의 글들로 채워졌다. 그 대표적인 글이 "향후 20년간 우리가 도시 전체에서 보게 될 이것은 수 세기에 걸쳐 내려온 도시 미관을 위협하고 있고, 우리는 철판으로 엮인 역겨운 기둥의 검게 얼룩진 역겨운 그림자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문구이다.
 - 에펠은 처음에 탑을 20년 간 세울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원래는 1909년에 소유권이 파리 시에 넘겨진 뒤 철거되었어야 했다. 시에서는 애초에 탑을 무너뜨릴 계획이었으나(디자인 공모의 조건에 탑이 임의로 철거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 탑을 통신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이 증명되면서 기한이 지나서도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되었다. 프랑스군은 1차 마른 전투에서 파리 시내의 택시들을 최전선에 투입할 때 이 탑을 이용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55피트의 텔레비전 안테나가 덧붙여져서 텔레비전의 송신탑으로 사용되고 있다.

□ 개선문

- 파리의 상징적인 건축물의 하나로, 단순히 개선문이라고 말하면, 파리의 이 개선문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 세계 최고의 관광 명소가 되고 있다. 이 개선문을 중심으로, 샹젤리제 거리를 시작, 12개



나폴레옹의 명예 의해 건축된 에투알 광장의 개선문

- 의 거리가 부채꼴 모양으로 뻗어 있어 그 모양이 지도 위에서 빛나는 "성 = étoile"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광장은 "별의 광장(la place de l' Etoile, 에투알 광장)"이라고도 부른다. 따라서 "에투알 광장의 개선문"의 정식 명칭은 'Arc de triomphe de l' Etoile' 이다. 그러나, 현재 이 광장은 샤를 드 골 광장(la place de Charles de Gaulle)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개선문은 1805년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1806년 ,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명예 의해 건설이 시작되었다. 루이 필립의 왕정 복고 시대, 1836년 완성했다. 나폴레옹은 개선문이 완성되기 전에 이미 사망하고, 그가 이문을 지나간 것은 1840년 파리로 이장할 때 였다. 고대 로마의 개선문 모범을 따온 것으로, 신고전주의 의 대표작 중의 하나이다. 개선문 아래에는 제1차 세계대전의 《무명 용사의 무덤》이 있다.

□ 베르사이유 궁전

- 원래 루이 13세가 지은 사냥용 별장이었으나, 1662년 무렵 루이 14세의 명령으로 대정원을 착공하고 1668년 건물 전체를 증축하여 외관을 가로축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온 U자형 궁전으로 개축하였



1634년 루이13세에 의해 사냥궁으로 세워진 베르사이유 궁전

- 다. 1680년대 다시 커다란 건물 2동을 증축하고 남쪽과 북쪽에 별관과 안뜰을 추가하여 전체길이가 680m에 이르는 대궁전을 이루었다. 이때 정원 쪽에 있던 주랑을 '거울의 방'이라는 호화로운 회랑으로 만들고, 궁전 중앙에 있던 방을 '루이 14세의 방'으로 꾸몄다.
- 거울의 방은 길이 73m, 너비 10.5m, 높이 13m인 회랑으로서 거울이 17개의 아케이드를 천장 부근까지 가득 메우고 있고 천장은 프레스코화로 뒤덮여 있다. 궁정의식을 치르거나 외국특사를 맞을 때 사용되었으며, 화려한 내부장식을 한 '전쟁의 방'과 '평화의 방'으로 이어진다.
 - 전쟁의 방에는 색조 회반죽으로 된 타원 모양의 커다란 부조가 있는데, 말을 타고 적을 물리치는 루이 14세의 위엄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남쪽에 있는 평화의 방 역시 유럽 평화를 확립한 루이 14세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그려져 있다.

□ 루브르 박물관



16세기초 프랑수아 1세가 모나리자 작품 등을 전시하면서 박물관의 역사가 시작됨



회화와 조각 이외에도 고대 유물, 건축물, 도자기 등 약 40만점을 소장하고 있고 이 중 약 3만 5천점을 전시하고 있음

○ 파리의 문화적 자존심을 지켜주는 대표적인 명소 루브르 박물관은 1190년 필립 오귀스트에 의해 건립된 성채였는데, 1930년 샤를르5세가 이낀 요새를 거주할 수 있는 저택으로 바꾸었으며, 르와르 지방에 기거하던 프랑수아1세에 의해 루브르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식 궁전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 그 후 계속적인 증·개축을 거치면서 역대 왕들이 수집한 명화나 조각들을 전시하게 된 루브르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 비로소 미술관으로서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였으나 1981년 미테랑 대통령이 발표한 '그랑 루브르(Grand Louvre)'정책에 의해 루브르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명실공히 세계최대의 박물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대대적인 신축공사의 일환으로 1989년 완공된 유리 피라미드는 루브르 궁의 중앙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루브르의 외관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은 매우 혁신적인 시도였으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루브르의 상징이 되었다. 피라미드

를 통해 내부로 들어가면 강당, 시청각실, 레스토랑, 그리고 미로와 같은 방대한 박물관을 안내해 주는 안내소가 있는 나폴레옹홀과 주차장, 각종 상점이 있는 새로운 지하공간 '까루젤 뒤 루브르'를 만날 수 있으며, 세 개의 전시관 쉐리, 드농, 리슐리유, 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다. 이렇듯 오랜 동안 증·개축되면서 풍부해진 대 루브르 박물관은 드농관과 쉐리관의 현대화, 센느강쪽 궁전의 복원, 까루젤과 뿔리 정원 수리의 수리가 끝나는 1998년에 완전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다.

IV. 스위스 연수내용

□ 인터라켄과 융프라우

- 인터라켄은 동쪽 브리엔츠 호수와 서쪽 툰 호수 사이에 있는 화려한 산간 도시이다. 이곳은 유명한 융프라우로 올라가게 되는 지점이고, 또 2,259m 주스텐 고개, 2,165m의 그림젤 고개, 2,431m의 풀카 고개를 방문하는 기지로 유명하다.



3,454m에 달하는 융프라우 요히는 '젊은 처녀의 어깨'라는 뜻을 지니고 있음

- 인터라켄에서 융프라우 요트까지 가는 등산전차는 첫 구간으로 인터라켄 오스트에서 그뤼델발트로 또는 인터라켄 오스트에서 라우터브루넨으로 가는 두 길이 있다. 두 번째 구간은 그뤼델발트에서 클라이네 샤이데크 또는 라우터 브루

넌에서 클라이네 샤이데크로 가게 되어, 라우터브루넨을 경유하든 그뤼넬발트를 경유하든 클라이네 샤이데크에서 만난다. 세 번째 구간이 클라이네 샤이데크에서 융프라우 요흐인데, 융프라우 요흐 정거장은 해발 3,454m로 알프스에서 가장 높은 철도역이다.

V. 이탈리아 연수내용

□ 밀라노 두오모 성당

- 영어의 돔(dome)과 같으며 라틴어(語)의 도무스(domus)를 어원(語源)으로 한다. 영어의 돔은 반구형(半球形)의 둥근 지붕, 둥근 천장의 뜻으로 사용되는 데 대하여 이탈리아어의 두오모와 독일어의 돔은 대성당(大聖堂:cathédrale)을 말한다.



1386년 비스콘티 공작의 명에 따라 공사가 시작되어 450년 후인 19세기 초에 성당이 완성되었다

-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주교신부가 미사를 집전하는 성당을 말하는데, 큰 도시에는 모두 두오모 성당이 있으며, 그 중 밀라노와 피렌체의 것이 유명하다. 이탈리아에서 두오모는 단순한 종교적 장소뿐만 아니라 지역민에게 가장 중심적인 장소인데, 과거 도시계획자들은 한 도시를 건설할 때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두오모를 배치한 후 주변에 시민광장, 관청, 공공시설, 상가 등을 배치하였다.

- 밀라노 두오모 성당은 도시 중심부에 있는 두오모 광장과 접해 있는 흰 대리석의 대성당으로 길이 157m, 폭 92m, 높이 108.5m인 성당으로는 바티칸의 산 피에트로 사원에 이어 세계 2번째의 규모를 자랑한다. 특히 135개의 뿔족한 첨탑과 3159개의 성자와 사도들의 조각군은 이 성당의 멋을 더해 주고 있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고딕 건축 양식인 밀라노의 두오모는 1386년 비스콘티 공작의 명에 따라 공사가 시작되어 450년 후인 19세기 초에 완성되었다. 내부에는 거대한 52개의 열주가 늘어선 광대한 공간이 있고, 15세기 때의 작품인 스테인드 글라스가 인상적이다. 오른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나 계단으로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맑은 날은 알프스 산맥까지 볼 수 있다. 두오모 앞에 있는 두오모 광장은 밀라노 시민들의 휴식 장소로 애용되고 있는데, 광장 중앙에는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기념상이 서 있고 갈레리아라는 아케이드가 광장 주위를 감싸고 있다.

□ 스칼라 극장

- 세계적인 오페라의 메카인 스칼라 극장은 모든 성악가들이 한번은 서보고 싶어하는 곳으로 1778년 창건되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으로 파괴되어 현재의 건물은 1946년 재건되었다.
- 이 건물을 지을 자리를 마련



로시니, 베르디, 푸치니 등 세계적인 오페라 작곡가들의 작품들이 초연되었던 스칼라 극장

하기 위해 축성을 거두어들이고 철거했던 산타 마리아 스칼라 교회의 이름을 따 스칼라 극장이라 이름 지어졌다. 건물을 짓는 비용은 부유한 밀라노 시민들에게 거둬들인 개인 오페라 박스석, 즉 '팔치'가격으로 충당되었다.

- '라 스칼라'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된 이 극장은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었으며, 널따란 광장을 향해 지어진 훌륭한 파사드가 그 특징이었다. 대강당은 3천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었다. 메인 플로어(플라테아)에서는 청중들이 서서 공연을 관람했으며, 그 위쪽으로 부유한 후원자들 전용으로 각기 화려하게 꾸며진 박스석이 있었다. 이 박스석 위에는 가장 열렬한 음악 애호가들을 위한 널따란 갤러리(로지오네)가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공연에 대한 아낌없는 찬사며 소리 높은 야유가 재빠르게 터져 나오곤 했다.

□ 피사의 사탑과 피사 두오모 성당



피사의 두오모 성당과 피사의 사탑, 피사의 사탑은 대성당에 있는 종탑임



탑의 높이는 북쪽 55.22m, 남쪽 54.52m의 차이를 보이며, 수직에서 5.4m가 기울어짐

- 피사의 사탑은 피사 대성당 동쪽에 있다. 흰 대리석으로 된

둥근 원통형 8층 탑으로 최대 높이는 58.36m이며 무게는 1만 4453t으로 추정된다. 2008년 현재 기울기의 각도는 중심축으로부터 약 5.5°이다. 294개의 나선형 계단으로 꼭대기까지 연결된다.

- 1173년 착공되어 1372년까지 3차례에 걸쳐 약 200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1173년에서 1178년 사이에 진행된 1차 공사 이후 지반 토질의 불균형으로 인한 기울어짐이 발견되었다. 그뒤 2차 공사에서 이를 수정하여 다시 건설하였으나 기우는 현상은 계속되었다. 1990년 이탈리아 정부는 경사각을 수정하기 위한 보수공사를 착수하여 10년에 걸쳐 보수작업을 진행한 결과로 기울어짐 현상은 5.5°에서 멈춘 상태이다. 2001년 6월 일반에 다시 공개하였으나 보존을 위하여 하루 30명으로 입장을 제한하고 있다.
- 피사대성당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대성당(Duomo di Pisa)으로, 1063년에 착공해 50년 동안 공사하여 완성한 피사 로마네스크 양식의 대성당이다. 정면의 섬세한 4단 기둥과 청동 문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내부에는 조반니 피사노의 대표작인 설교단이 있다. 설교단 앞에는 갈릴레이가 진자의 원리를 발견한 계기가 되었다는 '갈릴레이의 램프'가 있다.

□ 바티칸 미술관

- 이집트, 그리스, 아시리아 등과 같은 고대 문명의 작품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특징인 바티칸 미술관은 바티칸시국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궁전, 미술관, 박물관을 전부 지칭하는 말이다. 이곳에서는 고전 작품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면서 로마 미술의 탄생 배경을 이해할 수 있으며, 20세기 현대 미술 거장들의 작품도 천천히 관람할 수 있다. 현재 시스티나 성당에 보관 중인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나 '천지창조' 등 세계의 걸작을 비롯하여 수많은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 바티칸 박물관 내에 있는 시스티나 소성당은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벽화 '최후의 심판'이 있는 예배당으로 중요한 의식을 많이 치르는데 교황 선거도 이 곳에서 행해진다. 구약성경을 주제로 한 천장화 역시 미켈란젤로의 작품으로 '빛과 어둠의 분리'로부터 '노아의 만취'에 르기까지 총 9개 장면을 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중앙에 있는 '아담의 창조'가 유명하다.

□ 성 베드로 성당

- 320년경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성 베드로의 묘 위에 오랑식(五廊植)의 바실리카를 건립한 후 15세기 말까지 존재했다. 이를 성 베드로 구(舊)성당이라 부름. 1502년 브라만테의 안(案)에 따라 집중식의 신성당이 기공되었으나 설계상의 미비로 인하여 중단하고, 줄리아노 다 상갈로가 교회의 요망에 응해 장당식(長堂式)으로 변경했다. 프라 조콘도와 라파엘, 페르치, 안토니오 다 상갈로도 각기 안을 제시했으나 모두



약 150년에 걸쳐 완성된 성 베드로 성당



미켈란젤로의 서명이 있는 유일한 조각작품 '피에타'

채택되지 못하고 1546년 주임건축가가 된 미켈란젤로가 다시 집중식의 안을 설계하여 공사에 착수, 비뇨라가 소(小) 돔을 부가함. 미켈란젤로 설계의 대(大) 돔은 1587년~89년에 델라포르타와 도메니코 폰타나가 건조했다. 17세기 초, 교황 파울루스 5세(Paulus V, 재위 1605~21)가 다시 장당화(長堂化)를 명해 1607년 설계공모에 의해 마데르나의 정면안(正面案)이 당선, 1614년까지 거의 완성함. 1624년에 신랑부(身廊部)도 완성되고 헌당식을 거행 그후 1656~67년에는 잔 로렌초 베르니니가 성당 앞면의 광장을 에워싼 장대한 콜로네이드를 건조, 일세기 반에 걸친 공사를 완성했다. 면적 약 1만 6600m², 정면의 폭 71m, 오더의 높이 34m, 입구에서 아프시스까지 183m, 대(大) 돔의 내경 42m, 바닥에서 내각 정상부까지 104m, 지반면에서 돔 정점의 십자가까지 138m로서 세계 최대 최호화 성당건축이라 알려진 이탈리아 바로크 건축의 대표적 작품이다.

□ 스페인 계단

- 17세기에 교황청 스페인 대사가 이곳에 본부를 두면서 스페인 광장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1726년 프랑스대사의 기부로 만들어졌다. 영화 '로마의 휴일'에 등장하여 유명해졌으며 이탈리아 사람들과 관광객들로 항상 붐빈다. 계단에 철



137개의 계단이 있는 스페인광장은 영화 로마의 휴일에 등장하여 더욱 유명해진 곳이다.

쭝쭝이 심어져 꽃이 피는 시기에는 적색, 분홍색 꽃들이 만발한다. 계단을 올라가면 트리니타 데이 몬티 교회가 있다. 스페인 계단은 17세기에 트리니타 데이 몬티의 프랑스인 주민들이 교회와 스페인 광장을 계단으로 연결시키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졌다. 계단 바로 앞에는 '난파선의 분수'라는 뜻의 '바르카치아 분수(Fontana della Barcaccia)'가 자리해 있다. 이는 이탈리아 대표 조각가이자 건축가인 베르니니의 아버지 피에트로 베르니니가 홍수 때 스페인 광장까지 떠내려온 배를 보고 착안해 만든 것이다. 바르카치아 분수의 물은 깨끗해서 식수로 써도 아무 이상 없다. 로마에서 가장 맛있는 물로 유명하다."

□ 트레비 분수

- 트레비 분수는 1453년 교황 니콜라우스 5세가 고대의 수도 '처녀의 샘'을 부활시키기 위해 만든 것에서 시작된다. 그

후 1726년, 교황 클레멘스 13세 시절에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됐다. 이때 분수의 설계는 니콜라 살비가 담당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트리톤, 해마 등의 조각이 배치돼 있다. 트레비 분수에 가면 전 세계 동



트레비라는 이름은 트리비오(삼거리)에서 유래하였다. 분수가 있는 광장에서 길이 세방향으로 나뉘어있다.

전을 모두 볼 수 있다. 분수에 동전을 던지면 로마에 다시 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수에 동전을 던지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정석처럼 알려진 것이 등을 돌리고 서서 오른손에 동전을 쥐고 왼쪽 어깨 너머로 던지며 소원을 비는 것이다.

□ 베네치아 광장

- 광장 정면의 커다란 백악관이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 기념관 Vittoriano이다. 1885년부터 25년에 걸쳐 건축하여 1911년에 완성된 이 기념관은 이탈리아의 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초대국왕 빅토리오 엠마누엘 2세를 기념하



1871년 이탈리아 통일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광장

여 세웠는데, 네오클래식 양식으로 만든 16개의 원주가 호를 그리면서 있는 주랑이 볼만하다. 건물 정면에 있는 동상

이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 동상이다. 광장 왼편에는 베네치아 궁전이 있는데,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무솔리니가 이곳 2층 발코니에 군중들에게 연설한 것으로 유명하고 현재는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 콜로세움

- 정식 명칭은 '플라비우스 원형경기장(Amphitheatrum Flavium)'이라고 한다. 플라비우스 왕조 때 세워진 것으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착공하여 80년 그의 아들 티투스 황제 때에 완성하였다. 본래는 비공식 이름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전임자 네로 황제의 별장에 딸린 호수 자리에 이 원형경기장을 지었다고 한다.

이었던 콜로세움(Colosseum)의 유래에 대해서는 원형 경기장 근처에 있던 네로 황제의 거대한 청동상(Colossus Neronis)과 명칭이 혼동되었다는 설과 '거대하다'는 뜻의 이탈리아어 콜로살레(Colossale)와 어원이 같다는 설이 있는데 중세에는 그 자체가 '거대한 건축물'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했다. 글라디아토르(劍闘士)의 시합과 맹수연기(猛獸演技) 등이 시행되었으며, 그리스도교 박해 시대에는 신도들을 학살하는 장소로도 이용되었다. 피지배계층의 관점이나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다소 잔인한 측면이 있으나 고대 로마 시민들에게 원형 경기장은 경기를 보며 일체감을 느끼고 그 내용을 즐기는 하나의 공공 오락시설이었다.

- 한편, 로마 정치가들에게 원형경기장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고 화합을 도모하며 때로는 로마나 귀족의 권위에 불복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보복을 암시하는 공간이었다. 직경의 긴 쪽은 188m, 짧은 쪽은 156m, 둘레는 527m의 타원형이고, 외벽(外壁)은 높이 48m로 4층이며, 하단으로부터 도리스식(式)·이오니아식·코린트식의 원주(圓柱)가 아치를 끼고 늘어서 있다. 내부는 약 5만 명을 수용하는 계단식 관람석이 방사상(放射狀)으로 설치되어 있다.

□ 피렌체

- 고대 로마 시대부터 부유한 곳으로 알려졌던 토스카나 지방의 중심 도시 피렌체는 13세기에 이미 문학, 과학, 예술의 도시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에는 도시와 지역마다 여러 공화국이 있었습니다. 피



피렌체의 대표적 건축물인 두오모성당, 세레당, 종탑이 어우러져 있다.

- 렌체는 어느 공화국보다 풍부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피렌체의 상인들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와 종교, 예술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 피렌체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당대 최고의 인문학자, 과학자, 예술가들이 모여들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화 운동 중 하나로 평가받는 르네상스 운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운동은 고대 그리스·로마 문화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재생시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냈던 문예 부흥 운동을 말합니다. 르네상스가 피렌체에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이곳에 뛰어난 인문학자, 과학자, 예술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술가들과 학자들을 믿고 지원해 주었던 메디치 가문과 상인 조합인 길드가 없었다면 오늘날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예술가들이 남긴 작품을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 피렌체는 상업과 금융업이 발달하여 잘살게 되면서 이탈리아 각지에서 뛰어난 재주를 지닌 예술가와 인문학자, 사상가들이 피렌체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많은 업적을 남긴 인물들 중에는 피렌체 출신이 많다. 피렌체 출신의 유명한 인물로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시인이자 사상가인 단테와 정치가인 마키아벨리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인근 피사에서 태어난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작은 시골 마을 빈치가 고향인 레오나르도 다 빈치도 잘 알려져 있다.
- 두오모로 잘 알려진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은 피렌체를 상징하는 건축물입니다. 피렌체 시민들이 도시의 번영을 상징하는 종교 건축물을 짓기로 하고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1296년 공사를 시작하여 166년이란 긴 세월을 걸쳐 1462년에 완성되었다. 피렌체의 건축물 가운데 가장 높고 웅장하며,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성당이라고 한다.
- 두오모 지역에서 화려하고 세련된 상점가를 지나 남쪽으로 걷다 보면 넓은 시뇨리아 광장을 만날 수 있다. 시뇨리아

광장은 지난 수 세기 동안 도시의 중심이 되었던 곳이었다.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산책 코스이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 날이면 어김없이 시민들이 모여 토론을 벌였던 곳으로 시뇨리아 광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십 개의 조각상이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인 '다비드'상과 피렌체 시민들이 흰 거인으로 부르는 '넵투누스' 분수, 도나텔로의 작품 '사자'상, 잠볼로냐의 작품 '사빈 여인의 강간', 첼리니의 작품 '페르세우스' 등 르네상스 미술을 대표하는 여러 조각상들을 만날 수 있다. 시뇨리아 광장은 누구나 편안하게 르네상스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야외 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 베네치아(물의 도시)



나폴레옹이 유럽에서 가장 우아한 응접실이라고 한 산 마르코 광장



두칼레 궁전과 감옥을 이어 놓은 탄식의 다리와 곤돌라를 타는 사람들

○ 베네치아는 이탈리아 베네토주(州)의 주도(州都)이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말뚝 위에 건설한 118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물의 도시이다. 200개가 넘는 운하를 중심으로 섬과 섬을 연결하는 400여 개의 다리와 수많은 골목, 개성 넘치는 건축물로 이루어져 도시 전체가 거대한 박물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 포 강과 아드리아 해가 만나는 베네치아는 아주 독특한 지형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북쪽은 포 강에서 내려온 모래와 흙이 쌓여 삼각주가 형성되었고, 남쪽은 아드리아 해에서 밀려드는 바닷물의 조수 간만의 차이로 인하여 엄청나게 넓은 갯벌이 형성되어 있다.
- 베네치아가 시작된 곳은 토르첼로 섬이다. 5세기 중반 로마 제국이 분열되면서 북동쪽에 살던 훈족이 현재 베네치아가 속해 있는 이탈리아 북동부 베네토 지역을 침입하였다. 훈족을 피해 사람들은 비교적 갯벌이 적고 땅이 단단했던 토르첼로 섬에 모여 살기 시작했고, 이후 인구가 늘어나면서 다른 섬들을 찾아 이동하기 시작했고, 6세기 말에는 레알토 섬을 비롯하여 12개 섬에 사람들이 살게 되면서 베네치아는 도시로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베네치아는 아드리아 해를 사이에 두고 여러 도시들과 무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무역으로 많은 돈을 번 베네치아는 보다 커다란 배가 정박할 수 있는 항구와 물건을 보관할 편리한 장소가 필요했다. 그래서 베네치아 사람들은 앞 다투어 섬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거대한 나무 기둥을 세우고 항만 시설과 창고, 주택, 사무실 등을 건설했고 이런 작업은 근대까지 이어져, 자연 섬과 인공 섬을 합하여 모두 118개의 섬을 가진 거대한 물의 도시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 베네치아를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나 발걸음을 재촉하는 곳이 바로 산 마르코 광장이다. 그곳에 베네치아를 상징하는

산 마르코 대성당이 있기 때문으로 산 마르코 대성당은 서기 828년, 성인 마르코의 유골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베네치아로 옮겨 와 도시의 수호 성인으로 모시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다. 산 마르코 대성당은 864년에 처음 세워졌는데 10세기 후반에 일부가 불에 타 버렸다. 11세기에 대부분 복원되었고 일부는 13세기와 15세기에 증축한 것이다. 산 마르코 대성당은 864년부터 15세기 사이에 점차적으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산 마르코 대성당은 중세 건축의 걸작으로 꼽히고 있다. 건물이 웅장하고 뛰어난 예술품으로 장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양과 서양 건축의 장점을 조화롭게 구성하여 베네치아 양식이란 새로운 건축 양식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섯 개의 거대한 돔과 입구 정면의 화려한 모자이크, 여러 가지 색상의 기둥과 대리석 조각상은 콘스탄티노플(지금의 터키 이스탄불)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져온 건축 기법과 재료를 이용한 것이고, 정문 위에 세워진 성 마가의 말 조각과 입구를 장식한 조각은 로마에서 가져온 것이다. 또한 성당 안에 장식된 여러 조각상은 로마와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에서 구입하거나 전쟁 때 빼앗은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산 마르코 대성당은 터키, 이집트를 비롯한 동양의 건축과 로마, 지중해의 건축이 혼합되어 있다. 동서양의 건축 기법과 장식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최고의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고 웅장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화려하면서도 우아하여 훗날 서유럽 건축에 큰 영향을 끼쳤다.

- 한때 베네치아를 점령했던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은 산 마르

코 광장을 보고 ‘유럽에서 가장 우아한 응접실’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만큼 산 마르코 광장에는 매력적인 건축물과 낭만적인 공간이 많이 있고, 특히 플로리안 카페와 해리즈 바는 유명 인사들이 많이 찾았던 곳으로 매우 유명하다.

- 고틀레 같은 문학가들은 베네치아에 올 때면 어김없이 산 마르코 광장의 플로리안 카페를 찾아 손님들과 밤새 토론하거나 이야기를 하면서 보냈다고 하고 뿐만 아니라 18세기 최고의 바람둥이로 불리던 카사노바도 플로리안 카페를 무대로 수많은 여성들과 사랑을 속삭였다.
- 또한 광장 서남쪽 모퉁이에 있는 해리즈 바는 미국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를 비롯하여 수많은 작가들이 자주 찾았던 곳으로 지금도 그 작가들이 사용했던 테이블과 방명록이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VI. 오스트리아 연수내용

□ 인스부르크

- 인스브루크라는 이름은 인(Inn)강과 다리(Brucke)라는 뜻의 독일어를 합친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강((Inn river)위에 있는 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로마시대부터 동부 알프스의 교통요지로서 발전하였다. 유럽에서 알프스 산



막시밀리안 1세에 의해 만들어진 ‘황금의 지붕’은 이 도시의 상징이 되었다.

맥에 있는 도시 가운데 가장 큰 도시이며, 빈(Wien), 그라츠(Graz), 린츠(Linz) 그리고 잘츠부르크(Salzburg)에 이어 오스트리아에서 다섯번 째로 큰 도시이다.

- 1429년에 티롤(Tirol)의 주도가 되었고 1490년대에 막시밀리안 1세(Maximilian I)의 황실이 옮겨오면서 이 곳은 유럽의 정치, 문화 중심지가 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1938년 나치(NAZI)에 합병되었으며, 143년부터 1945년까지 계속된 폭격 시험으로 인해 도시 전체가 큰 피해를 입었다.
- 구시가지는 이미 12세기에 건설되었으며, 15세기에는 지방도시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다. 당시 이곳에 거소(居所)를 두었던 황제 막시밀리안 1세가 건조한 ‘황금의 지붕’은 지금도 시의 상징이다. 1500년에 지어진 ‘금의 지붕’(Goldenes Dachl)은 인스브루크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로 건물 전면 에 나와 있는 발코니의 지붕이 모두 금으로 덮혀있는 독특한 건물이다. 1996년부터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VII. 독일 연수내용



하이델베르크 성과 대학이 보이는데 대학에는 별도의 캠퍼스가 없이 광장을 일반시민과 공유한다고 한다.



1703년에 문을 연 하이델베르크 대학 학생 주점 겸 레스토랑으로 16대손이 대를이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 하이델베르크

- 하이델베르크는 독일,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에 있는 도시로서, 독일 최고(古)의 대학도시로 유명하다. 시내에서 보이는 산 위에 붉은 빛이 도는 돌로 지어진 하이델베르크 성이 있다. 하이델베르크 성은 1400년대에 지어지기 시작해 16~17세기를 지나며 지금과 같은 르네상스 양식의 외형을 갖추게 되었다.
- 30년 전쟁, 프랑스의 공격 등으로 파괴되고 보수 되기를 반복하며 수난을 겪다가 1800년 프랑스의 샤를 드 그랭베르 공이 이 성을 보존할 것을 주장하면서 사라질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성에 올라가면 지붕들이 모두 주황색인 하이델베르크 시내 전경을 감상할 수 있고, 네커(Necker)강과 카를 테오도르(Karl Theodor)다리도 한 눈에 들어와 하이델베르크의 아름다움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성에서 제일 아름다운 건물이라는 프리드리히관과 프리드리히 5세가 영국으로부터 데려온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하루 만에 지어 선물했다는 엘리자베스의 문 등 아름다운 볼 거리들이 많다. 특히 엘리자베스의 문은 60대의 귀태가 30대인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진 곳으로도 유명하다.
- 1386년 선제후 루프레흐트 1세(Ruprecht I)에 의하여 설립된 하이델베르크대학교는 독일에서 가장 오래 된 대학으로 16세기에 종교개혁의 보루가 되었다. 30년전쟁(1618~1648) 이후 쇠퇴하였다가 프랑스혁명 전쟁 이후 옛 명성을 회복하여 19세기 독일의 대표적인 대학이 되었다.

VIII. 연수도시의 시사점

□ 벨리브(자전거 대여 시스템)



벨리브 무인 보관소 모습



왼쪽은 라 보른이라 하는데 이것으로 벨리브 가입, 티켓 결제, 벨리브 대여를 한다. 오른쪽은 자전거 잠금 장치이다.

○ 시스템 운영현황

- 위 치 : 파리 전역
- 운영방법 : 위탁운영(2007. 7월부터 시행)
 - ※ 위탁회사 : JCDecaux (프랑스 옥외광고전문기업)
- 운영현황 : 2만대의 자전거와 1,800여개의 무인 벨리브 보관소가 300m마다 설치되어 있음

○ 벨리브는 파리시장이 시행한 친서민 정책의 2탕으로 성공을 거둔 정책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바캉스를 즐기는 것으로 유명한 파리시민 중에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바캉스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음. 그래서 파리시장은 바캉스를 떠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세느강변에 가난한 파리시민들을 위해 모래사장을 만들고 샤워시설을 만들어 바캉스를 즐기게 한 것이 대성공을 거둔 데 이어, 두 번째로 내놓아 성공한 것이 벨리브라는 것이다.

- 공공 자전거 길거리 대여 서비스 ‘벨리브’는 파리시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위탁업체의 광고수익으로 시스템을 운영하여 시의 재정문제도 해결하고, 연 인원 600만명 이상이 이용하여 대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자전거는 친환경적인데다 대도시의 교통혼잡을 풀어주는 해결사로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 벨리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가 있어야 함. 파리 곳곳에 300m간격으로 배치된 자전거 대여소 어느 곳에서나 바로 빌려, 아무 대여소에나 반납하면 됨. 동네 도로가에 개방식으로 만들어진 대여소의 단말기에 신용카드를 이용기간별 티켓을 구입하면 되고 이때 개별적으로 예약코드가 부여됨. 이용자는 예약기간 중에 이 코드를 기억하여 아무 곳에서나 이용이 가능함
- 이용 선택은 하루, 일주일, 일년 단위로 운영되며 자전거를 1일 빌렸을 경우 하루동안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하지만 30분안으로 자전거를 이용한 후 다른 벨리브 보관소에 반납하고 다시 30분을 이용하는 식으로 사용해야 한다. 7일, 1년 단위로 대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30분씩 이용해야 하며 30분이 초과가 되었을 경우 첫 번째 30분에 1유로, 두 번째 30분에 2유로, 세 번째 30분에 4유로씩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벨리브 자전거 티켓 가격은 1일은 1.7유로(30분씩 이용), 7일 8유로(30분씩 이용), 장기 대여 1년 29유로(30분씩 이용), 1년 39유로(45분씩 이용)로 저렴한 편이고 결제시 보증금은 150유로로 관광객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용 연령은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함.

-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원동기와 같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동차와 함께 도로를 달려야 하고 역주행을 해서는 안 된다. 도로에서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 반드시 멈춰야 한다. 자전거 도로에는 자동차와 별도로 자전거 신호등이 있어서 이를 잘 지켜야 하고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올라가서는 안 된다. 교통법 위반이고 벌금이 60유로(90,000원)나 된다.

□ 프랑스 노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 관리

- 프랑스에서는 무인주차요금징산시스템(parking meter)을 운영하여 자율적으로 노상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음



시내 도로변 흰색 점선으로 표시된 노상주차장에 승용차가 일렬로 주차되어 있음. 노란색 점선은 화물차 전용 주차장임

-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차 차량 간격이 매우 좁음(bumper to bumper)

- 프랑스 파리의 경우 유료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일부 불법주차가 발생하므로 유료주차공간에도 최대 2시간까지만 허용하고 있음

-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파리 시내 거주자와 비 거주자로 나누어 차등 부과하고 있다. 파리 시내 거주자 주차 요금은 하루 0.65유로임. 비 거주자 주차 요금은 시간당 1.2유로, 2.4유로, 3.6유로 3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 거리의 휴지통

- 선진 도시국가들의 휴지통은 바닥면과 접촉되어 있지 않고 벽체나 가로등, 교통표지판 등에 부착된 경우가 많음. 휴지통 주변에 쓰레기가 고이는 것을 막고 청소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독립적 형태가 아닌 주변의 공공 시설물과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휴지통 사례로써 건물의 벽체나 교통신호기 교통표지판 등 공공시설물에 단정하고 부착되어 있음



쓰레기통에도 광고 문구가 부착되어 있고, 프랑스는 9.11테러이후 속이 보이는 비닐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 기본구조에 투명한 비닐로 구성되어 이는 테러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 쓰레기 봉지가 쉽게 교체 가능하고 휴지통에 쓰레기가 남지 않아 냄새가 없으며 휴지통이 채워진 상황을 쉽게 파악 할 수 있어 교체시기가 정확하여 가로환경의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다.

□ 세외수입 증대 방안

- 국내 전통시장 상가는 도로에 상품을 적치하거나 고정시설물을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으나 정비·단속이 안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식당가에 서는 도로에 테이블을 펴고



유럽의 거리카페 등은 의자가 인도쪽을 향하고 있으며 질서정연함을 엿볼 수 있음

야간 노상영업을 하고 있음

- 유럽의 경우에는 카페테리아, 식당 등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노상영업을 하고 있고, 광장 등 폭이 넓은 인도에 위치한 레스토랑, 주점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인도위에 합법적으로 테이블을 설치하여 야외 영업을 하고 있음
- 우리도 역 주변이나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을 시범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어 구정에 반영한다면 지역경제활성화와 세외수입 증대 등에 도움이 될 것임

□ 교통수요관리(TDM) 정책전략

- 파리, 프라이부르크 등 명품도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선진도시들은 태양광과 태양열의 도시 에너지화, 자동차 추방, 시멘트와 콘크리트 추방, 쓰레기와 물 소비 최소화의 네 가지 원칙을 시민과 시민단체의 자발적 참여로 잘 지켜지고 있다.
- 노면전차 노선 확충, 자전거 도로망 확충, 주택가 시속 30km로 제한, 주차요금 인상, 노면 주차장 제한 등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불평하지 않는다. 생태도시를 만드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시내 중심가로에 자동차 진입을 억제하고, 주거지구 안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걷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진입 금지구역 '파크 앤 라이드'(교외 주민이 자가용을 주차하고 대중교통으로 시내에 들어오는 시스템)와 '레기오카르테'(전차나 버스를 정기권 한 장 만으로 이용하는 교

통카드)카 세어링 제도 등은 독일의 대표적인 교통정책이다.

- 우리도 복잡한 시내에 주차공간을 만들기 위해 주차 빌딩을 세우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는 비교된다. 지속적인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시설확충이 필요하나 한정된 재화 등으로 용량 확충은 한계에 부딪치고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교통수요관리에 중점을 둔 정책전략으로 운전자의 통행 행태 변화를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 프랑스 파리 20구역 구성

○ 행정구역 개요

- 파리의 구는 20개의 구로 나누어지며 20개의 구는 제 1구인 씨떼섬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나선형의 달팽이 모양으로 퍼져나가면서 1, 2, 3... 구로 나뉘짐
- 행정구역상의 파리는 동서의 거리가 12킬로미터, 남북의 길이가 약 8킬로미터 정도로 크지 않으며, 총면적 86km²에 파리 시를 한 바퀴 돌면 36킬로미터, 인구도 220만명 정도
- 이 행정 구역은 나폴레옹 시대에 정해진 것으로 150년이 지난 오늘까지 거의 변경되지 않고 있음
- 이것이 흔히 소(小) 파리라고 부르는 진짜 파리인데, 이는 당시에 성으로 둘러싸여 21개 성문이 있던 성안을 말함
- 그러나 지금 파리라고 하면 흔히 대파리까지 포함하게 되는데, 대파리의 인구는 거의 1,100만명이나 되고 지역도 몇 배로 넓음

○ 구의 지위

- 파리, 마르세이유, 리옹의 경우 특례로서 구(arrondissement)를 설치하며, 구에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구의회와 구의회에 의하여 간접 선거로 선출된 구청장을 두도록 규정
- 법인격과 입법권(조례제정권)이 없고 고유한 재산과 재원이 없으며, 인사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는 준자치구적인 성격
- 파리에 20개, 마르세이유에 16개, 리옹에 9개가 있으며 그 한도는 국사원(conseil d'Etat)의 정령(decree)과 관련 시의 의결기관의 의결을 거쳐 수정할 수 있음.

○ 구의 조직

- 주민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구의원중 일부가 시의원을 겸하게 됨으로써 구정과 시정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체제
- 구의회는 3분의 1은 시(arrondissement)에서 선출된 시의원, 3분의 2는 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으로 구성
- 구의회의 의결사항은 시장을 경유하여 임명직지사에게 접수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 시장은 제출하기에 앞서 재의를 요구할 권한을 가지며, 또한 행정재판소에 소송 제기도 할 수 있음
- 구의회는 시장이 부재중일 경우에는 의결 사항을 직접 제출 가능

○ 구청장의 선출

- 구의회 의장이기도 한 구청장(maire d'arrondissement)은 시의원을 겸직하는 의원 가운데서 구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됨
- 구청장은 구의원의 30%범위에서 부구청장을 둘 수 있음
- 구에는 행정사무국장을 두어 행정사무를 총괄

○ 구의회의 권한

- 시와 구간의 정보의 중심지 및 중계 역할을 수행

- 사회적 또는 레크리에이션 목적을 갖는 일정한 공동시설의 관리권
- 시의회의 위임을 받아 시 소유의 각종 시설관리와 서비스를 제공
- 예산 자율권이 없음
 - 구의 투자예산은 시의회에서 결정
 - 구의 예산편성은 각 구청장이 하되 예산총액은 시예산에 명시되고 구별 예산은 시예산의 부록에 별도로 수록
 - 수입은 시에서 구에게 부여하는 총괄교부금으로 배분
- 제한된 인사권만을 가지고 있으며 구의 인건비도 시예산에서 지출

○ 구청장의 권한

- 호적, 학교의무, 국방의무 및 선거 등의 국가사무 수행
- 학교금고의 의장, 구에 관련된 토지이용의 법적 행위나 부동산 또는 시설에 관한 정보 및 의견을 제시하는 권한 등 코윈사무 수행

○ 광역시 구역내 기초자치단체 개편시 참고

- 프랑스의 구제는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해 온 프랑스의 중앙집권적 전통을 살리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지방분권화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접목
- 구청장은 시의회 의원이면서 부시장(adjoint)이 되며, 시의회 의원은 동시에 구의회 의원이 되어 시와 구 상호간의 협력 및 보완하는 관계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시행정과 구행정의 보완 및 협력 관계를 구축
- 프랑스의 구제는 특별·광역시 구역내 기초자치단체간 행·재정 여건 편차가 심하고 님비 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

□ 지중화 사업으로 도시미관 조성

- 로마에는 전기선 및 통신선 등을 지중화함으로써 전신주와 건물주변 전기선을 거의 볼 수 없음. 이는 도시미관을 고려한 것이라 하겠다. 가로등 기둥을 설치하는 대신 건물 상부를 연결시켜 골목길 중앙부 위쪽에 등을 설치하고 있다. 이렇게 하므로써 골목길을 고르게 비추는 역할을 한다.
- 도시미관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골목길 점등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도로 관련 개선방안

- 스쿨존 30km 속도제한
 - 학교 앞 도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을 설치하여 안전웬스, 과속 방지턱 등 설치와 제한속도를 30km로 제한하고 있으나, 제한속도가 안 지켜지고 있는 실정임
 - 이탈리아 로마의 이면도로 거리는 로마시대 설치한 석재 포장인 현재도 사용되고 있으며, 노면이 울퉁불퉁하게 요철형태로 설치되어 있어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고 있음
- 이면도로 집수받이 및 하수구
 - 인도가 없는 이면도로는 측구와 상가가 접해 있어 측구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 덮개를 덮어 놓거나,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여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곳이 많음
 - 이면도로 하수시설을 도로 가운데에 설치하고 도로 가장자리보다 가운데를 낮게 하여 빗물이 가운데로 모여 배수 되도록 설치하면 여름철 수해방지에 효과적일 것임

IX. 연수후기

- 프랑스 가이드가 처음 한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프랑스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 말이 피부에 와 닿지 않았지만 며칠 동안 파리에서의 경험(?)을 통해 조금이나마 가이드의 말뜻을 알 수 있었다. 프랑스는 사회복지제도가 상당히 발달해 있다고 한다. 아이를 갖으면 국가가 육아보조를 해주고 직장을 구할 때까지 주택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직장을 구했어도 일정한 수준의 수입을 얻지 못할 경우에도 계속 지급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프랑스를 부러워할 수 없다. 복지로 주는 만큼 세금이 쎄다고 한다. 이러한 시스템 때문에 두가지 병폐가 있는데 첫째는 악착같이 돈을 벌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고, 둘째는 사회주의제도의 한 부분인 노조인데 프랑스는 노조의 파워가 대단하다고 한다.
- 파리에서 우리 일행이 경험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버스기사를 아침에 노동경찰이 근무조건 등을 불시에 검문한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전 일정에 큰 차질을 빚기도 했다. 두 번째는 파리역에서 스위스로 가기 위해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이유없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열차가 취소되었으니 다음열차를 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승무원이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고 이일에 대하여 항의하는 파리지민도 없었다는 것이다. 가이드는 이러한 에피소드가 프랑스의 사회주의 단면이라고 하였다.

- 이탈리아에서는 가이드 고용제도에 눈길을 끌었다. 한국 가이드가 있지만 별도로 자국 가이드를 의무적으로 팀별 1명씩 배치하는 것을 보고 아무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관광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효율적인 고용제도라고도 느꼈다. 그리고 주요 고대 유적지와 문화재를 잘 관리·보존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각종 개발정책과 관리소홀로 훼손되는 우리 문화재를 생각해 보고 우리도 고대 문화재를 문화산업과 연계시켜 새로운 관광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 유구한 역사적 숨결을 간직한 유럽 연수에서 얻은 소득 중 하나는 오랜시간 끈기있게 지켜낸 역사가 곧 가치있는 관광상품이라는 것이다. 건물 자체를 헐고 부수기보다 건축물 보존을 위해 내부 보수를, 울퉁불퉁한 도로의 불편함을 선택하여 또 하나의 습관이 문화가 되고 또 하나의 역사가 되는 것이었다. 산악지역의 핸디캡을 천혜의 자연 자원으로 활용하여 주민 90%가 관광업에 종사하여 높은 관광수입으로 국가경쟁력을 지닌 스위스는 인간중심적인 도시계획 및 건축으로 인상깊은 곳이었다. 현란한 조명과 번뜩이는 간판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중세의 은은함이 미소 짓게 하는 거리, 쾌적한 도시를 위해 2인용 소형차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검소함이 또 한번 미소짓게 하는 곳이다.
- 새로운 관광패키지 개발을 위해 낡은 것은 부수고, 휘황찬란한 조명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업그레이드 된 최신 기기에

목말라하는 우리네의 모습, 편리함을 뽐내는 습관이 우리의 문화이고 역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도시의 숨결을 느끼며 자연스레 발길이 머무는 곳, 우리의 쾌적한 미소가 문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여행에서 얻은 또 하나의 소중함은 “이야기”가 있는 관광이다. 분수에 동전을 던지고 아이스크림을 먹는 인파로 끓이지 않는 관광 행렬은 그들만의 멋진 스토리텔링에 기인한다. 웅장한 성당, 거대한 조형물, 유명한 예술품이어서라기보다 작은 동상, 작은 사물에서도 전해지는 잔잔한 이야기에서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마음에 담는 여행이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마을의 전설과 에피소드를 재미와 감동이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 서로서로 전해지는 여행지가 되었으면 한다.

X. 참 고 자 료

- 세 부 일 정 표 (별첨 1)
- 참 석 자 명 단 (별첨 2)

[별첨 1]

세 부 일 정 표

DATE	CITY	TRANSIT	TIME	ITINERARY
1일 5/20(월)	인천 파리	OZ0501 전용차량	출발12:50 도착17:50	인천국제공항 출발 파리 샤를 드골 공항 도착 가이드 미팅 후 호텔로 이동 호텔 투숙 및 휴식 HTL : COMFORT HOTEL SEVRAN [확정]
2일 5/21(화)	파리	전용차량	08:00 09:00 18:30	호텔 조식 후 나폴레옹의 개선문, 에펠탑 2층 전망대+세느강 유람선, 콩코드 광장, 샹제리제 거리 방문 파리 근교 베르사이유로 이동하여 베르사이유 궁전 방문 파리 귀환하여 중식 후 석식 및 호텔 투숙 HTL : COMFORT HOTEL SEVRAN [확정]
3일 5/22(수)	파리 벨포트 인터라켄	전용차량	08:00 09:00 12:00 14:23 17:26	호텔 조식 후 세계 3대 박물관중 하나인 루브르 박물관 관람 중식 후 역으로 이동 파리 출발 T.I.R을 이용하여 벨포트 도착 후 인터라켄으로 이동하여 호텔 투숙 HTL : HOTEL ALPIN SHERPA [확정]
4일 5/23(목)	인터라켄 융프라우 밀라노	융프라우 전용차량	07:00 18:30	호텔 조식 후 산악열차로 알프스의 최고봉인 “융프라우 산” 등정 얼음궁전, 스팅크스 전망대 등 관광 하산 후 중식 패션의 도시 밀라노로 이동 (4시간 30분 소요) 밀라노 도착하여 간단한 시내관광, 밀라노 두오모 성당, 빅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 갤러리아, 스칼라 극장 등 방문 석식 및 호텔 투숙 HTL : HOLIFAY INN EXPRESS [확정]
5일 5/24(금)	밀라노 피사 로마	전용차량	07:00	호텔 조식 후 이태리의 또다른 매력 피사로 이동 (4시간 소요) 피사 도착하여 중식 7대 불가사의의인 피사의 사탑과 피사 두오모 성당 전경 관람 이태리의 수도 로마로 이동 (4시간 소요) 석식 및 호텔 투숙 HTL : HOTEL ALBATROS [확정]

DATE	CITY	TRANSIT	TIME	ITINERARY
6일 5/25(토)	로마	전용차량	07:00	호텔 조식 후 바티칸 박물관, 성 베드로 성당, 시스티나 예배당, 콜로세움 전경, 트레비 분수 방문
			18:30	로마에서 가장 복잡한 베네치아 광장, 스페인 계단 관광 석식 및 호텔 투숙
				HTL : HOTEL ALBATROS [확정]
7일 5/26(일)	로마 피렌체 베니스	전용차량	07:00	호텔 조식 후 르네상스의 발생지 피렌체로 이동 (4시간 소요) 도착하여 중식 후
			18:30	피렌체 두오모 성당, 시뇨리아 광장, 단테 생가, 베키오 다리 등 방문 후 물의 도시 베니스로 이동 (3시간30분 소요) 석식 및 호텔 투숙
				HTL : MONDIAL [확정]
8일 5/27(월)	베니스 인스부르크	전용차량	07:00	호텔 조식 후 산 마르코 광장, 산 마르코 성당, 두칼레 궁전 외부, 탄식의 다리 등 방문
			18:30	중식 후 인스부르크로 이동 (5시간 소요) 마리아테레지아 거리, 황금의 작은지붕 석식 및 호텔 투숙
				HTL : HOLIDAY INN EXPRESS AIRPORT [예정]
9일 5/28(화)	인스부르크 하이델베르크 프랑크푸르트	전용차량 OZ0542	07:00	호텔 조식 후 네카 강변에 위치한 대학도시 하이델베르크로 이동 (5시간30분 소요) 테오도어 다리, 하이델베르크 고성 전경 및 대학가 방문 후
			17:00 출발19:00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이동 프랑크푸르트 출발, 인천 향발
				기내 숙박
10일 5/29(수)	인천		도착12:20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해산

[별첨 2]

참 석 자 명 단

남 구 의 원 (7명)		남구 직원 (6명)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의 장	유 재 호	자치행정국장	전 상 진
부 의 장	임 정 빈	복지건설전문위원	박 중 환
기획행정위원장	이 영 훈	주차관리팀장	강 석 일
복지건설위원장	김 금 용	직 원	서 명 진
의 원	최 백 규	직 원	최 민 우
의 원	이 봉 락	직 원	김 민 희
의 원	임 경 임		